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관련 ETF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6억 원

-모투자신탁 43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8년 02월 23일)

벤치마크 없음

참조지수 MSCI Daily TR Net World USD Index(T-1) (참조지수)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89.5%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 상기 펀드는 5월 28일 청산 예정입니다.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4.35%	10.13%	30.20%	43.40%	31.06%	37.28%	-	36.08%
참조지수	5.77%	9.81%	28.74%	48.68%	40.87%	49.10%	-	48.2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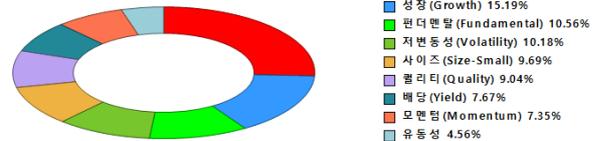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04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지역별 자산배분 현황>



<팩터별 자산배분 현황>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04월말, 모투자신탁 편입비중)

종목명	비중(%)
ISHARES MSCI EAFE MIN VOL FACT	9.7
ISHARES MSCI EAFE SMALL-CAP	9.4
SPDR S&P GLOBAL DIVIDEND ETF	7.4
VANGUARD MID-CAP VALUE ETF	7.0
SPDR S&P 600 SMALL CAP VALUE	6.1
VANGUARD VALUE ETF	6.0
ISHARES MSCI USA MOMENTUM FACT	5.8
ISHARES MSCI USA VALUE FACTOR	5.7
VANECK VECTORS MORNINGSTAR W	5.3
SPDR S&P 400 MID CAPGROWTH E	5.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운용펀드 : 총 연 0% (판매 0%)
(공통사항)
운용 0%, 신탁 0%, 사무관리0%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8% 이내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4% 이내
-클래스 C/C-P2/S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지난 한달간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금리 안정세, 주요국 중앙은행 완화적 스탠스 유지 등은 글로벌 증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코로나 재확산, 테이퍼링 우려 등은 증시 상승에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동 펀드는 미국에 약 67%, 선진국 약 27%, 이머징 약 1%, 유동성에 약 5%를 투자하고 있으며, 팩터별 자산 배분 현황으로는 모멘텀에 약7%, Growth 약15%, Quality 약 9%, Value 약 26%, Size-Small 약10%, Sustainability 약10%, Low-volatility 약10%, Yield 약8% 유동성에 약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향후 글로벌 증시는 주요국의 정책 모멘텀 효과와 백신경제 본격화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유로존은 1분기 역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최근 경제지표 호조 등을 감안하면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3월 말에는 실물 인프라 부양책에 해당하는 미국 일자리 대책(American Job Plan)을, 이번에는 미국 가족 대책(American Families Plan)이라는 형태의 휴먼 인프라 투자가 골자인 부양책을 발표하여 주요국 증시와 원자재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인도, 브라질, 일본 등 코로나 재확산 국가들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예상보다 빠른 회복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긴축 내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중단의 논의, 금리 상승 등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